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8, No.6 [December 2021], pp.41-55
http://dx.doi.org/10.20496/cpew.2021.8.6.41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자와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자의 성격 특성, 성관련 통념 및 성중독의 차이*

Comparison of Digital Sexual Offender and Date Sexual Abuser according to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ex-related Myth, and Sex Addiction

송 원 영(Wonyoung SONG)**
건양대학교(Konyang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디지털 성폭력을 저지른 경험자와 데이트 성폭력 경험자의 특성 파악 및 비교를 통해 성폭력의 여러 양상에 대한 이해와 예방, 재범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20~60대 남성 15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가해경험,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강간통념,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신념 수용도, 성중독 및 어둠의 4요소 성격 척도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성폭력 경험자는 대부분의 척도에서 성폭력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성 관련 통념에서는 데이트 성폭력 경험자보다도 높은 점수를 보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해 본 결과, 이미지 기반 성학대 신념과 가학 성향이 디지털 성폭력 경험을 예측할 수 있었고, 성중독과 나이가 데이트 성폭력 경험을 예측할 수 있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두 집단 특성 및 성폭력 행위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개입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강간통념,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성중독, 어둠의 4요소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various aspects of sexual violence and to prevent reoffending by identifying and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sexual offenders and date sexual abusers. For this purpose, 158 men in their 20s to 60s across the country have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ir data on online sexual offending experience, dating sexual assault experience, rape myth, image-based sexual abuse belief acceptance, sex addiction, and the short tetrad for dark personality scale were analyzed. As a result, those who experienced online sexual offending scored higher than those who had never experienced sexual violence on most scales. They scored higher than those who experienced dating sexual violence in sex-related myths. As a result of predicting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mage-based sexual abuse beliefs and sadistic tendencies could predict online sexual offending experiences, and sex addiction and age could predict date sexual abuse experiences. Based on the resul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groups and appropriat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for sexual violence behavior were discussed.

Keywords: Digital sexual offending, Date sexual abuse, Image-based sexual abuse acceptance, Sex addiction, Dark tetrad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하반기 건양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제1저자,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Konyang University, Nonsan 32992, Korea)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375건에서 2019년 31.396건으로 증가하였다. 성폭력의 수법은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여서 보다 대담하거나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 기기를 성범죄에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디지털 성폭력은 법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정보에 대한 유포범죄 일체(권미경, 2019), 또는 보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금전적 목적이나 기타 악의적 목적에 의해 성적 촬영물을 인터넷이나 포르노 사이트에 직접 또는 중간 인물을 통해 공개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 및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김수아, 장다혜 2019)를 말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은 유포, 불법촬영,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진합성, 사이버 괴롭힘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한국 여성 인권 진흥원, 2021).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폭력은 2018년 2,289건, 2019년 4,114건, 2020년 6,983건으로 한 해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특히 불법촬영의 경우 스마트폰 등의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344건이었던 검거건수는 2019년 5,440건, 2020년 4,744건으로 엄청난 증가를 보였다(2021 경찰통계연보). 외국도 이러한 상황은 심각하여, 호주의 경우 실태 조사 결과 무려 10명 중 1명(11.1%)이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있다(Powell, Scott, Flynn, & Henry, 2020). 디지털 시대로의 빠른 전환은 디지털 세상에서의 편리성 이면에 성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성범죄를 크게 아동 포르노나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소비형, 인터넷을 매개로 채팅이나 만남을 추구하는 교류형, 이미지기반 성학대물을 생산하거나 배포하는 배포형, 적극적인 성착취 및 협박, 인신매매 등을 하는 착취형으로 구분한다(송원영, 2021)

데이트 성폭력은 성적인 친밀감이 있는 사이에서 발생되는 모든 폭력행동(Koss, 1988) 또는 낭만적 관계에 있는 미혼 파트너 사이의 폭력(Carlson, 1987)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의 검거 건수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연인관계로 기재된 것은 2010년 446건에서 2019년 616건으로 증가하였고, 지인으로 기재된 경우는 1,014건에서 3,055건으로 증가하였다(경찰청, 2020). 데이트폭력으로 범위를 넓히면 2013년 7,237건, 2014년 6,675건에서 2018년 10,245건, 2019년 9,85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데이트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연인관계라는 점을 부각시켜 성폭력이라는 범죄 자체의 심각성을 약화시킨다는 시각에서 데이트 성폭력보다는 일반 성폭력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실제 데이트 성폭력은 훨씬 많은 숫자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은 우울, 불안, 무력감, 수치심 등의 증상과 함께 급성 스트레스 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Resnick, Kilpatrick, Dansky, Saunders, & Best, 1993). 데이트 성폭력은 이에 더해 연인관계였던 가해자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로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까지도 추가적으로 초래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따뜻하고 강력한 지원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성폭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접근도 중요하다. 성범죄자의 약 20%가 5년 이내에 재범을 한다는 것을 참고하면(Hanson, Bourgon & Helmus, 2009), 성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해하여 그들의 재범을 막는 것 역시 성폭력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인가? 우선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성격측면에서 살펴보는 관점들이 있다.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성격을 장애 측면에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APA, 2013)라 한다. 범죄심리학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정신병질(Hare, 1991)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신병질을 측정하는 PCL-R에는 정신병질이 죄책감이나 공감이 결여된 정서적인 요인, 피상적이고 거짓된 대인관계 요인, 행동조절이 부족하고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 요인, 자극을 추구하고 기생적인 삶의 패턴을 사는 생활양식 요인이 포함된다(Hare, 1991).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두운 측면을 개념화하고 측정하기 위한 시도로 Paulhus와 Williams(2002)는 어둠의 성격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개발하여 소개하였다. 그는 처음에 마키아벨리즘, 자기애적 성격, 정신병질을 어둠의 3요소(Dark Triad)로 개념화하여 소개하였으나, 이를 다시 개정하여 가학성향을 포함시켜 어둠의 4요소로 수정하였다(Paulhus, Buckels, Trapnell, & Jones, 2021). 마키아벨리즘이란 16세기 메디치 가문의 정치가이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술을 사용하여 정치권력을 유지했던 니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의 군주론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자기애는 처음에는 후기 정신역동학파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현재는 성격장애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 자기에 대한 과도한 몰두, 비현실적이고 웅대한 자기상, 공감 결여에 따른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APA, 2013). 어두운 성격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가학성향은 냉담한 착취자(callous exploiter)라는 특징을 가진 성격이다. 가학성향은 두 가지 이유로 어두운 성격에 포함되었다. 하나는 가학성향이 다른 세 성격의 공통 요인인 냉담함, 즉 공감능력의 손상이라는 기준을 만족시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세 성격이 다루지 못했던 독특한 요소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 쾌감을 느끼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Paulhus

등, 2021). 공감능력의 손상과 착취는 성범죄자들의 특징이기도 하다(Marshall, Hudson, Jones, & Fernandez, 1995). 어둠의 3요소는 강압적인 성행위를 의미있게 예측해줄 수 있고, 남성에게서는 어둠의 3요소의 공통요인에 이어 정신병질이 이를 예측하는 요소로 밝혀졌다(Lyons, Houghton, Brewer, & O'Brien, 2021).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지적 특성 중에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있다. 흔히 강간통념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행동에 대한 고정관념이자 편향된 태도이다(Lonsway & Fitzgerald, 1994). Burt(1980)는 강간통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소개하였고, 이후 연구들은 강간통념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고하였다(최인숙, 김정인, 2015, Malamuth et al., 1995).

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성중독(sex addiction)이라는 행동중독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성중독은 아직은 공식적인 진단명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최근에 개정된 진단기준은 ICD-11에는 강박적 성행동 장애(Compulsive Sexual Behavior Disorder, CBCD)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형태로 소개되어 있다(WHO, 2019). CBCD는 강하고 반복적인 성적 행동을 6개월 이상 통제하지 못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나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 등의 영역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나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Kraus et al., 2018). 성중독은 성범죄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성중독이 심해지만 중독적인 행동을 통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범범 행동에 관여하게 된다(Carnes, 2001). 따라서 성중독은 성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일탈적인 성욕구는 성범죄 재범의 가장 큰 예측치로 활용되고 있다(Hanson, 2006).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의 유형인 디지털 성폭력과 데이트 성폭력의 특징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향후 성폭력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성격의 어두운 측면들을 배경요인으로, 성 관련 통념들을 학습을 통한 인지적 요인으로, 성중독을 성범죄 발생과 관련된 일탈적 요인으로 상정하고 각각의 특징에 대한 차이와 더불어, 이 요인들이 디지털 성폭력과 데이트 성폭력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참여자는 전국에 거주 중인 20대~60대까지의 성인 남자 157명으로, 각 연령대별 비율에 따라 모집하였다(20대 30명, 30대 31명, 40대 33명, 50대 31명, 60대 33명). 평균 나이는 44.5세(SD=13.3)였다. 이들은 국내에 대규모의 패널을 소유하고 있는 조사기관을 통해 온라인 방식의 설문조사로 참여하였다. 조사기관은 연구자

의 의뢰를 받아 패널들을 섭외하였고, 성과 관련된 민감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전 안내를 받은 후 설문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사람들만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조사기관에 패널로 참여시에 계약한 금액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일정량의 보상을 받았다.

2. 측정도구

가. 강간통념수용 척도

Burt(1980)가 개발한 강간통념을 우리나라에서 이석재(1999)가 수정 및 번안하여 제작한 강간통념 수용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9점 척도로,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척도 8문항, 피해자의 성경험 척도 4문항,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척도 5문항,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척도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6이었다.

나.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K-SIAMA)

Powell 등(2019)이 개발한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SIAMA)를 송원영(2021)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K-SIAMA를 사용하였다.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Likert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이다. 소척도는 최소화/변명, 비난의 2가지로 나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의 피해자에 대한 통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Powell 등(2019)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최소화/변명에서 .94, 비난에서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에서 .91, 최소화/변명에서 .96, 비난에서 .75으로 나타났다.

다. 온라인용 성중독 척도

송원영, 박선경, 신나라(2016)가 한국판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온라인용 성중독 검사를 사용하였다. 총 30개의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진 검사로, 성적 상상 및 모방 충동 소척도 7문항, 일상생활 장애 소척도 8문항, 내성 소척도 8문항, 일탈적 성행동 소척도 7문항으로 구성된 총 4가지 요인의 척도이다. 송원영 등(2016)의 개발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7이었다.

라. 어둠의 4요소 척도

부정적인 성격을 측정하기 위하여 Paulhus(2020)가 일탈된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SD4(Short Dark Tetrad: SD4)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저자가 마키아벨리즘, 자기애, 정신병질을 측정하는 척도를 묶어 어둠의 3요소(Dark Triad)로 지칭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가학(Sadism)을 추가하여 4개의 요인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Paulhus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마키아벨리즘 .75, 자기애 .80, 정신병질 81, 가학 .8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마키아벨리즘 .84, 자기애 .91, 정신병질 .78, 가학 .78으로 나타났다.

마.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Powell 등(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이미지 기반 성범죄 가해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1) 성적 이미지를 몰래 찍는 것, 2) 성적 이미지를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유하는 것, 3) 성적 이미지를 공유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 이미지를 요구하는 것, 4) 성적 이미지의 공유를 협박하며 돈이나 물건 요구하는 것, 5) 성적인 이미지 공유를 협박하며 성적, 또는 물리적 폭행을 하는 것, 6) 원치 않는 사람에게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게 되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예'에 답한 사람을 디지털 성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바.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

데이트 폭력 가해를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개정판 갈등책략 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2: CTS-2)를 우리나라 대학생들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한 개정판 갈등책략 척도(김정란, 1999)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전체 검사는 2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성적 폭력을 측정하는 4문항만 사용하였다. 본래의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없다'로부터 '매우 자주 있다'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혀 없다'에 표시한 사람만 0으로 코딩하여 데이트 폭력 경험이 없는 것으로, '있다'부터는 1로 코딩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이 연구의 자료는 SPSS 23.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데이트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해당 척도에서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자,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자, 가해경험이 없는 자로 구분하였다.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은 더 경험자가 적은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자로 포함하였다. 둘째, 각 변인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세 집단에 따라 각 변인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사용하여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셋째, 각 변인이 데이트 성폭력 가해 및 디지털 성폭력 가해를 예측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단계적으로 변인을 투입하며 변인의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최대우도 방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집단간 차이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자 9명과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자 34명, 가해 경험이

없는 사람 115명을 대상으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1〉.

어둠의 4요소의 경우,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F2,155=22.004, p<.001), 사후검증 결과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자와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자의 점수가 가해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척도에서도 모든 성격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사후검증에서는 마키아벨리즘 경우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자기애의 경우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자만 가해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의미있는 수준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정신병질의 경우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자와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자의 점수가 가해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학성향은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자,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자, 가해경험이 없는 사람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고 각 집단은 모두 서로에 대해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강간통념의 경우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F2,155=35.891, p<.05), 사후검증 결과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자와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자의 점수가 가해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척도의 경우 모두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증 결과,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과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소척도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자와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자의 점수가 가해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피해자의 성경험과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소척도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자의 점수가 가장 높고,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자의 점수가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가해경험이 없는 사람의 점수가 가장 낮은 순서였고, 집단의 차이가 모두 의미있는 수준이었다.

이미지기반 성학대 신념 수용의 경우,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F2,155=33.001, p<.001), 사후검증 결과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자,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자, 가해경험이 없는 사람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고 각 집단은 모두 서로에 대해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소척도의 경우 최소화에서만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사후검증에서는 전체척도와 마찬가지로 세 집단이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반면, 비난 소척도는 집단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중독의 경우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F2,155=39.253, p<.001), 사후검증 결과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자와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자의 점수가 가해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척도에서는 모두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증 결과, 성적 상상 및 모방충동과 내성, 일탈적 성행동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자와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자의 점수가 가해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상생활

〈표 1〉 집단에 따른 성관련 통념, 성중독, 어둠의 성격 4요소의 비교

(*N*=158)

구 분	디지털성폭력 가해경험 [a†] (*n*=9)	데이트성폭력 가해경험 [b†] (*n*=34)	가해경험 없음 [c†] (*n*=115)	집단간 / 집단내 *SS*	*df*	*MS*	*F*	Scheffe
어둠의 4요소	88.111 (20.642)	78.971 (12.256)	65.678 (12.983)	7830.722 / 27580.955	2 / 155	3915.361 / 177.942	22.004***	a, b 〉 c
마키아벨리즘	23.111 (6.071)	21.941 (4.119)	19.513 (4.988)	233.359 / 3691.502	2 / 155	116.680 / 23.816	4.899**	-
자기애	22.333 (6.000)	20.412 (4.973)	17.452 (5.449)	379.987 / 4488.722	2 / 155	189.993 / 28.959	6.561**	a 〉 c
정신병질	20.333 (5.292)	17.882 (3.945)	14.174 (3.655)	600.487 / 2260.051	2 / 155	300.243 / 14.581	20.591***	a, b 〉 c
가학성향	22.333 (4.690)	18.735 (3.736)	14.539 (4.394)	858.758 / 2837.192	2 / 155	429.379 / 18.304	23.458***	a 〉 b 〉 c
강간통념	100.556 (43.775)	81.794 (33.507)	46.504 (22.354)	50638.509 / 109344.529	2 / 155	25319.255 / 705.449	35.891*	a, b 〉 c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41.000 (13.426)	36.971 (13.717)	25.078 (12.261)	5191.924 / 24789.266	2 / 155	2595.962 / 159.931	16.232***	a, b 〉 c
피해자의 성경험	19.889 (9.293)	14.676 (8.056)	7.078 (5.094)	2556.362 / 5790.626	2 / 155	1278.181 / 37.359	34.214***	a 〉 b 〉 c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24.444 (13.893)	18.794 (10.307)	8.826 (5.893)	4118.634 / 9008.303	2 / 155	2059.317 / 58.118	35.433***	a, b 〉 c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15.222 (8.090)	11.353 (5.619)	5.522 (3.226)	1486.870 / 2752.016	2 / 155	743.435 / 17.755	41.872***	a 〉 b 〉 c
이미지기반 성학대 신념 수용	60.667 (22.327)	44.706 (18.530)	30.096 (10.522)	11897.936 / 27941.007	2 / 155	5948.968 / 180.265	33.001***	a 〉 b 〉 c
최소화	41.333 (19.144)	28.059 (15.926)	15.522 (7.333)	8595.226 / 17432.578	2 / 155	4297.613 / 112.468	38.212***	a 〉 b 〉 c
비난	19.333 (4.950)	16.647 (6.338)	14.574 (6.838)	268.721 / 6851.886	2 / 155	134.361 / 44.206	3.039(*NS*)	-
성중독	86.667 (32.323)	73.794 (22.404)	48.383 (15.166)	25902.118 / 51140.724	2 / 155	12951.059 / 329.940	39.253***	a, b 〉 c
성적 상상 및 모방 충동	18.444 (4.065)	18.706 (4.352)	13.435 (4.947)	852.110 / 3547.542	2 / 155	426.055 / 22.887	18.615***	a, b 〉 c
일상생활 장애	22.333 (9.734)	16.471 (7.395)	10.348 (3.786)	1935.297 / 4196.558	2 / 155	967.648 / 27.075	35.740***	a 〉 b 〉 c
내성	23.111 (9.360)	19.588 (6.675)	12.878 (5.349)	1824.156 / 5433.420	2 / 155	912.078 / 35.054	26.019***	a, b 〉 c
일탈적 성행동	19.444 (9.153)	16.059 (6.065)	9.687 (3.560)	1650.614 / 3328.835	2 / 155	825.307 / 21.476	38.429***	a, b 〉 c

† 평균, ( ) 안은 표준편차

* p<.05, ** p<.01, *** p<.001

장애 소척도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자의 점수가 가장 높고,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자의 점수가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가해경험이 없는 사람의 점수가 가장 낮은 순서였고, 집단의 차이가 모두 의미있는 수준이었다.

〈표 2〉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자를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N*=158)

종속변수	예측변수	*B*	*SE*	*Exp(B)*	*95% CI*	*p*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	1단계					
	이미지 기반 성학대 신념	.078	.021	1.081	1.039~1.126	.000
	상수	-6.331	1.171	.002		.000
	2단계					
	이미지 기반 성학대 신념	.047	.025	1.048	.998~1.101	.060
	가학 성향	.236	.123	1.266	.995~1.611	.055
	상수	-9.390	2.230	.000		.000
NagelKerke R^2=.382, Hosmer & Lemeshow test X^2=10.330 (p=.243)						

전반적으로 볼 때,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가해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모든 변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가해 경험이 있는 두 집단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2.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두 집단의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주요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각 집단을 판별하기 위한 변인을 알아보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을 위해서는 나이와 함께 네 가지 주요 변인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강간통념과 이미지기반 성학대 수용 및 성중독은 전체 점수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으나 어둠의 4요소는 각각의 소척도가 각기 독립적인 성격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기에, 4가지 성격을 따로따로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더 중요한 예측변수를 순서대로 파악하기 위해 전진 방식의 최대우도 방식을 통해 변수를 투입하였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자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1단계에서 이미지 기반 성학대 신념 수용 척도가 유의한 예측을 보였고, 2단계에서 가학 성향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두 변수의 예측에 대한 Hosmer & Lemeshow test는 X^2=10.330 (p=.243)으로 나타났고, p-value가 .05 이상으로 나타나서 유의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두 변수는 합쳐서 변량의 38.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gelKerke* R^2 =.382). 두 단계를 통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분류 정확성은 94.9%를 보였다.

3.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자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1단계에서 성중독이 유의한 예측을 보였고, 2단계에서 나이가 추가로 투입되었다. 두 변수의 예측에 대한

〈표 3〉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자를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N*=158)

종속변수	예측변수	*B*	*SE*	*Exp(B)*	*95% CI*	*p*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	1단계					
	성중독	.045	.010	1.046	1.026~1.066	.000
	상수	-4.000	.655	.018		.000
	2단계					
	성중독	.048	.010	1.049	1.029~1.071	.000
	나이	.049	.018	1.050	1.014~1.088	.001
	상수	-6.538	1.220	.001		.000
NagelKerke R^2=.302, Hosmer & Lemeshow test X^2=11.058 (p=.198)						

Hosmer & Lemeshow test는 X^2=11.358 (p=.198)으로 나타났고, p-value가 .05 이상으로 나타나서 유의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두 변수는 합쳐서 변량의 30.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gelKerke R^2=.302). 두 단계를 통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분류 정확성은 78.5%를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디지털 성폭력과 데이트 성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이 성격, 성적 통념, 성중독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고, 또한 이 측정치들을 이용해 해당 성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두 유형과 성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주요 변인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 측정치들을 통해 의미있는 수준으로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예측할 수 있었다.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집단은 어둠의 4요소로 측정한 성격 특징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 집단과 자기애, 정신병질, 가학성향에서 모두 의미있는 상승을 보였고, 데이트 성폭력 집단 가해 경험 집단은 자기애와 가학성향에서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의미있는 상승을 보였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 집단은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 집단보다 가학성향에서 의미있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성격특성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 집단이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 집단보다 성격적으로 더 부정적인 집단임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가학성향이 더 높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데이트 성폭력은 두 사람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이지만,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거나 그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를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비난하는 등의 추가적인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점에서(김

지현, 전종설, 2021) 가학성향이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의 특징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특히 의미있는 결과라 하겠다. 아울러 어둠의 4요소는 최근 발표되어 범죄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밝히는 기초연구 및 치료 등의 응용연구에 활용되는 바, 이 연구를 통해 성범죄자 관련 연구에 지속적으로 추가 연구가 가능하다는 시사점이 있겠다.

둘째, 두 집단은 성관련 통념을 측정하는 강간통념과 이미지기반 성학대 신념 수용척도 모두에서 가해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강간통념이 높을수록 성폭력 가해 성향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최인숙, 김정인, 2015, Malamuth et al., 1995). 이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진 것은 일부 소척도에서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 집단이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 집단보다 강간통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미지기반 성학대 신념 수용에서는 확연히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 집단은 피해자가 성경험이 더 많을 것이라는 통념이나 이성의 행동이 성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통념이 더 높았다. 이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폭력이 특정한 경험이나 행동을 보이는 피해자로 인해 유발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념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방어적인 해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고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미지 기반 성학대 신념 수용은 그 정의상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 예상되었다. 다만, 비난 소척도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송원영(2021)의 타당화 연구에서도 비난 소척도의 통계적 속성이 다소 낮았던 것을 고려하면 집단간의 차이인지 척도의 안정성 문제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다만 최소화 요인에서는 일관성있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서 이들이 성학대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책임은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더불어, 성관념 통념은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해 수정될 수 있는 변인이기에(서혜석, 이길구, 2018), 성폭력 가해 경험자에 대한 치료에 이 변인들의 변화를 위한 내용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두 집단은 모두 성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성중독 정도가 높았다. 이들의 성범죄의 기반에는 성과 관련된 주제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성적 관심이나 행동에 점차 빠져들어 일탈적인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 현상이 존재함을 이 척도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 집단은 일상생활장애 소척도에서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서 이들의 성중독 수준이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표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미지 기반 성학대 신념과 가학 성향

이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 집단을 유의하게 예측해 줄 수 있었음이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 집단이 그와 관련된 사고 내용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또한, 성적 통념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도구인 강간통념 척도보다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이미지 기반 성학대 신념 수용 척도가 예측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성폭력의 문제를 보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그에 특화된 측정과 평가를 진행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가학성향이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추가된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성폭력의 속성이 가학적인 성향과 맞닿아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결과가 됨과 동시에 어둠의 3요소가 4요소로 개정되면서 추가된 가학성향의 유용성을 확인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Marshall, Hucker, Nitschke, & Mokros, 2016). 향후 다른 유형의 성폭력 및 범죄에서 가학성향이 갖는 의미와 예측력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자를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중독이 의미있는 변인으로 투입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성중독은 성과 관련된 주제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해지고, 내성을 통해 점차 일탈적인 수준까지 발전해나갈 수 있는 개념임을 고려할 때(Carnes, 2001), 데이트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성과 관련된 집착을 친밀한 관계인 데이트 상황에서 표출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따라서 데이트 성폭력의 예방이나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성중독적인 주제를 다루어줌으로써 재범유발요인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 나이가 예측변인으로 포함된 것은 이 연구의 대상이 20대에서 60대까지임을 고려할 때, 한편으로는 50~60대가 20~30대에 비해 2배의 세월을 살면서 가해를 할 시간이 더 많았을 수 있다는 자연적 원인을 고려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50~60대가 젊은 시절인 20-30년 전의 성관련 문화가 데이트 폭력이 좀 더 용인되는 남성중심적 사회였음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성관념과 범죄에 대한 사회문화적 변천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성폭력 가해 경험을 자기보고를 통해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부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자기보고식 검사에는 자신의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보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범죄를 저지른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하고 예측하는 실증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가해 경험을 보고한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낮은 기저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예측률이 과대추정되거나 적절한 변수가 탈락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첫 번째 한계점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실제 범죄자를 통한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겠다. 또한 집단 간의 참여자 숫자의 차이가 커서 분석 결과가 일반화되기에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일반인과 실제 성범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념의 명확성을

위해 디지털 성폭력과 데이트 성폭력을 구분하여 비교하였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 둘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디지털 성폭력은 성폭력의 방법이고, 데이트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중복된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데이트 관계에서 저질러진 디지털 성폭력은 데이트 성폭력에서 경험하는 후유증 뿐 아니라 온라인에 업로드된 영상으로 인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낙인찍히는 등의 2차 피해까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중복집단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여 더 큰 사례수를 통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대상자는 남성으로 한정하였다. 아직까지는 여성 성범죄자의 숫자가 적어 남성 대상으로만 진행하였으나, 여성 성범죄자 중에도 조력자, 공격자 등의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연구에는 남녀에 대한 자료를 모두 수집,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최근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과 지속적인 문제로 고통을 유발하는 데이트 성폭력을 주제로 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 의미있는 차이점을 발견하였다는 점, 이들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발견하여 향후 개입과 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경찰청(2020). **경찰범죄통계**. 경찰청

경찰청(2021).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권미경(2019).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10**(3), 39-76

김수아, 장다혜(2019). 온라인 피해 경험을 통해 본 성적 대상화와 온라인 성폭력 문제. **미디어, 젠더 & 문화, 34**(1), 89-130.

박경(2008).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간의 관계: 공감 및 강간통념의 중재 및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519-536.

서혜석, 이길구(2018). 개인상담이 전자장치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성폭력통념 수용도, 자아존중감,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사티어 경험적 성장모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8**(5), 189-202.

송원영(2021). **성범죄자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송원영(2021). 한국판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통념수용척도(K-SIAMA)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6**(3), 185-200.

송원영, 박선경, 신나라(2016). 온라인용 성중독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1), 225-242.

이석재(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31-148.

최인숙, 김정인(2015).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 관련 태도가 공격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277-300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1). **202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여성가족부.

Carnes, P. (2001). *Out of the shadows: Understanding sexual addiction* (3rd ed.). Hazelden Foundati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217-230.

Carnes, P. (2001). *Out of the Shadows: Understanding Sexual Addiction*. 3rd. ed. Center City, MN: Hazelden.

Hanson, K. (2006). The Characteristics of Persistent Sexual Offenders: A Meta-Analysis of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6), 1154-63

Hanson, R. K., Bourgon, G., Helmus, L., & Hodgson, S. (2009). The principles of effective correctional treatment also apply to sexual offenders: A meta-analysi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6*(9), 865-891.

Hare, R. D. (1991).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ronto: Multi-Health Systems.

Kraus, S. W., Krueger, R. B., Briken, P., First, M. B., Stein, D. J., Kaplan, M. S., et al. (2018). Compulsive sexual behaviour disorder in the ICD-11. *World Psychiatry, 17*(1), 109–110.

Lonsway, K. A., Fitzgerald, L. F.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133–164.

Lyons, M., Houghton, E., Brewer, G., O'Brien, F., (2020). The Dark Triad and Sexual Assertiveness Predict Sexual Coercion Differently in Men and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6.

Malamuth, N. M., Linz, D., Heavey, C. L., Barnes, G., & Acker, M. (1995). Using the confluence model of sexual aggression to predict men's conflict with women: A 10-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2), 353–369.

Marshall, W. L., Hudson, S. M., Jones, R., & Fernandez, Y. M. (1995). Empathy in sex offen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5*(2), 99-113.

Paulhus, D. L., & Williams, K. M. (2002).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Narcissism,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6), 556-563.

Paulhus, D.L, Buckels, E. E., Trapnell, P. D., & Jones, D, N. (2021). Screening for Dark Personalities: The Short Dark Tetrad (SD4).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7*(3), 208-222

Powell, A., Henry, N., Flynn, A., Scott, A. 2019). Image-based sexual abuse: The extent, nature, and predictors of perpetra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Australian resi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92*, 393-402.

Powell, A., Scott, A., Flynn, A., & Henry, N. (2020). *Image-Based Sexual Abuse: An International Study of Victims and Perpetrators*. Technical Report of RMIT University.

Resnick, H. S., Kilpatrick, D. G., Dansky, B. S., Saunders, B. E., Best, C.L.. (1993). Prevalence of civilian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 representative national sample of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984.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11th ed.). Geneva: WHO.

1 차원고접수일 : 2021.11.10.
수정원고접수일 : 2021.12.10.
게재확정통보일 : 2021.12.16.

논 문 저 자

송 원 영(Wonyoung SONG) 정회원



- 1997년 2월: 충남대학교(문학사)
- 1999년 2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문학석사)
- 2007년 2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철학박사)
- 2007년 3월~현재: 건양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교정심리치료, 청소년 심리, 인지행동 치료, 척도 개발 등